

## Special

## 의사의 입장에서 본 병원의 사회공헌활동



글·정 성 수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삼성서울병원 의료지원단장

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병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는 기업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과 동일한 맥락일 것이다[1].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고,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환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찾아 오지도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활동 또는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게 되는 무료 이동 진료라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병원의 사회 공헌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그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사회 공헌 활동은 대가가 없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사회가 기업에 대한 시각과 마찬가지로 공헌활동을 하는 병원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 공헌 활동이 병원과 사회를 바람직한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이 병원으로 하여금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는 노력 봉사, 장학금 기부, 컴퓨터 교육 등 기업과 구성원의 전문성을 이용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 경우, 단순한 노력 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의 사회 공헌 활동이 기업의 활동과 다른 점은 병원 구성 인원의 특성상 단순한 노력 봉사보다는 전문성을 이용한 진료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사회 사업실을 통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혜 증진을 위해 자선 진료 또는 수술비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의료 봉사단을 통해서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가 무료로 진료를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회 사업실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은 외부로부터의 기부금이나 병원자체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병원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적인 진료와 다름이 없이 진행되고, 단지 의료비만 지원이 되면 되는 활동이므로 별다른 논의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의료 봉사단이라는 단체를 이용한 무료 이동 진료활동은 그 활동 내용과 질적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 봉사단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 봉사단을 통한 사회 공헌활동은 많은 병원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의료 봉사단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의 입장에서 본 시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의료 봉사단의 역할과 활동 내용

병원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병원은 의료 봉사단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의료 소외지역에서 무료 이동 진료라는 형태의 활동을 하게 된다. 진료의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 진료이기는 하나 병원에서 하게 되는 진료 활동과 마찬가지로의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이 의료 봉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의료 봉사단의 무료 이동 진료 활동에 있어서 그 역할과 활동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려면 진료의 질적인 면, 의료 봉사단의 이동성 및 봉사활동 장소 선정에 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진료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료 진료의 질이 병원에서 하는 진료의 질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 의료 봉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생각된다. 의료 소외지역이라 하여도 이미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어 있어 전국 어느 병원 이든지 당일 방문이 가능하고, 방송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최근 의료 수준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단지 시간과 경제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단한 문진과 청진기 정도의 진료 후 투약을 하는 정도의 진료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진료의 질적 수준이 의료 봉사단의 사회 공헌 활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 봉사에 참여하는 의사와 직원들도 병원에서 하게 되는 진료 내용에 비해 너무 떨어지는 수준의 진료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봉사 활동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되는 양호실 수준의 진료에 대해 만족을 못하게 되고, 점차로 활동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고, 참여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형태의 사회 공헌 활동은 점차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하게 되는 무료 진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진료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무료 이동 진료에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진료의 이동성에 관한 문제이며,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대립되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진이 진단 장비

와 치료 도구를 가지고 찾아 갈 수 있는 곳이어야만 진료 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성은 의료 봉사단의 무료 진료활동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진단 장비와 치료 도구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운영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며, 인력, 장비 및 도구가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의료 봉사단의 이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의료 봉사단의 무료 진료에 있어서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동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타협하는가 하는 것이 의료 봉사단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규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셋째로, 지역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무의촌이 나라에 존재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큰 맘 먹고 몇 일을 이동해야 하던 시절에는 지역 선정이라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병원이 나서서 하는 사회 공헌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의과대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하던 무의촌 진료만이 방학기간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었다. 병원이 사회 공헌활동으로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무료 진료를 하기 시작한 즈음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의촌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지역을 찾아서 진료를 해야 무료 진료 활동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의료 봉사단이 무료 진료라는 사회 공헌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의 질적인 수준, 의료 봉사단의 이동성 및 지역 선정의 문제 등을 적절히 조율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가지 문제가 항상 적절하게 조율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의료 봉사단은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서 무료 진료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마을 주민들의 공통적인 건강 관심사에 대한 교육, 환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검진, 질병 예방 활동 등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다. 앞으로 나라의 전체적인 사회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무료 진료활동 자체 보다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 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의료 봉사단의 발전 방향

병원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이 병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각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의료 봉사단의 활동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 봉사단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의료 봉사단의 역할과 활동 내용에서 언급한 문제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 봉사단의 가장 중요한 활동내용인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의료 봉사단이 발전을 하려면 진료를 받게 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의료진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의료진 특히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의사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장비와 도구가 준비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의료 장비를 포함한 각종 전자 장비들이 기능은 많아지면서도 크기는 소형화되는 추세이고, 따라서 이동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장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뛰어나면서도 기능이 많은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동성과 기능은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 의료 봉사단의 상황에 맞게 선택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주민들과 의료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궁극적으로는 활동의 중점을 무료 진료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의료 복지가 발달하게 되고,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점차적으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증상이 없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의료 봉사단의 활동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 봉사단의 역할 및 활동 내용에서의 발전 방향이 위에 언급한대로 진료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이동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전문 진료가 가능하게끔 진료 장비를 확보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료 봉사단 체제의 유지와

활동을 위한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의료 봉사단이 봉사 활동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각종 의료 장비는 수요가 많지 않고 개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료 장비의 유지 보수, 진단을 위한 시약 구입, 치료를 위한 약품 제공, 많은 인력의 이동 및 숙식 등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병원은 전문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진료 장비, 시약, 약품, 이동 및 숙식 등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면서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의료 봉사단의 활동이 점차로 위축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 봉사단이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는 기업과 손을 잡고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기업과 병원이 손을 잡게 되면 기업이 비용 부담만을 하는 것 외에도 기업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지역에 병원 진료가 함께 들어가 활동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예로 2007년도 3월부터 매일경제신문과 녹십자가 삼성서울병원과 손을 잡고 '무료 진료 행복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매일경제신문에 요청된 지역 중 의료 소외 지역을 선정하여 삼성서울병원 의료 지원단은 무료 진료를 하고, 녹십자 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2].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회 공헌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한국산재의료원 등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3]. 이외에도 최근 들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병원과 기업의 협약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병원은 전문 지식과 기술이 제공하고, 기업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 이외의 공헌 활동을 하는 형식의 사회 공헌 활동이 최근 유행을 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병원의 사회 공헌 활동이 여러 형태의 활동 중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 봉사단은 이동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봉사단이며,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의료 봉사단은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 무료 진료를 병원에서 하는 진료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런 무료 진료 개념을 넘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발전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더 많은 병원들이 의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병원과 손잡고 함께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맺는 말

병원의 사회 공헌 활동은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을 우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병원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고, 발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무료 이동 진료 등 의료 봉사단의 활동을 통한 병원의 사회 공헌활동이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 중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병원과 함께 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 점차로 늘고 있어 의료 봉사라는 사회 공헌 활동이 발전할 가능성은 더욱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의 사회 공헌 활동을 의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진료 장비의 개선을 통한 무료 이동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 내용과 범위의 연장을 도모함으로써 병원의 사회 공헌 활동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HA**

#### 참고 문헌

1. 박종규, 기업은 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가. 기업사회공헌연구소 사회공헌 컬럼에서 인용함.
2. 매일 경제 신문 2007년 3월 5일 보도
3. 메디컬 투데이 2008년 7월 21일 보도